

② 인공 신학을 말한다.

이런 종교도 인간의 이해를 희생의
제물로 요구하는 것은 거부한다. 인이 화
된 것은 이해를 전제한다. 신비주의라면
이런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. 자기 안
에서 도취하는 것은 구태여 설명^{하라}할^필
~~필~~ 강요할 권리는 아무도 ^{이제 뭐가 4차원} ~~없다~~ 있다. 그리
스도교도 그 예외일 수 없다. 그것이

No.

언어화된 이상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
것이여야 한다.

예수 타 기독교는 일단 구별된다. 기독교
교는 예수를 전제한 것은 사실이지만
~~예수를 그 네용 ~~으로~~ ~~상징~~ ~~하는~~ ~~않았다~~~~
^{예 ~~약~~ ~~은~~ ~~예수~~ ~~를~~ ~~배제~~ ~~하고~~ ~~있다~~.}

기독교는 예수의 필연은 아니다. 만일
예수의 사건이 소아시아를 거쳐 유럽으
로 들어가지 않고 인도를 거쳐 동양 땅
에서 형성됐더라면 전혀 다른 모습을 ~~보~~

~~No. 우리 애매 다기성을 갖는다. 그럼에도 불~~
지냈을 것이다

거 하고 우리는 오랫동안 미국을 통해서
 들어온 기독교^와를 예수를 알치시키고 그
 교설이 예수의 뜻을 가장 대표적으로
 풀이 했다는 전제를 맹목적으로 추종 해
 왔다.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사
 건 화 그리고 성서를 주체적으로 받아
 드려야 할 때에 이르렀다. 이같은 우리
 의 자세는 우리의 의식에 앞서서 우리
 의 역사적 상황이 강요^한했다. 그렇게 해
 서 세상에 출현된 것이 믿음 신학이다.

K

이러는 긴 세월

~~2000~~ 이천 년 동안 기독교는 무수한 우
 어 곡절을 겪으면서 형성되어 왔다. 로마
 의 콘스탄티노플 대제에 의한 기독교의
 로마 국교화는 갈릴리 예수와 종교를 완전
 히 통합시키는 계기가 되었다. 그때부터
 기독교는 모든 학문의 여왕의 자리에
 군림하고 이에 걸맞는 최대한의 장식을
 해 왔다. 이를 위해 서구의 모든 사생
 이나 문화를 주저없이 이용하였다. 그러
 므로 기독교와 기독교 문화를 구별할

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것이다. 그것은
동시에 서구문화와 기독교의 혼합을 의
미하기도 한다.

이천 년의 역사를 가진 기독교는 교리
적 틀을 견고하게 만들었고 그것을 세분
화하는 일을 거듭했~~을~~ 뿐 아니라 각
분야에 ~~바다~~ ~~응분의~~ ~~일맞는~~ 무장을 했다. 그리고 그
것을 수호하기 위해 변증론이라는 것이
고유한 분야로 발달되었다. 그러나 그
공격을 대별하면 다음 일곱 가지이다.

리드온코가 그레코-클라의 켈리켄이서
 자기 뽐이 하는 과정이서 ^{해나준경} 헬라적 시교의 틀
 이 자신을 마칠 것이다

철학한 = 2층은 헬라적인 것도 아니
 그 안락상리의 세계정복전설이서 중동의
 고대종교사상과 맞나쁘고 생겨난 제국의
 불화현상이다 영원한 평행선을 긋는 약
 극적 이원론으로 생의 극제들은 실평
 하는 쪽은 이조부려 볼가수한 일이다
 인간세계와 영원한 평행선을 긋는 신이

우리에게 무슨 상관의 빛깔인가! 모든
것을 주객관계에서 보는 것도 <관점>을
즐기는 허상적 유산이다. ^{현실적으로} 죽는 자와 생
는 자 양하는 자와 구명하는 자가 ~~있~~
제 엄격히 구분되는가 구분되면 그 줄
~~치니~~ ^발 ~~소위 된 것~~ ^{소위 된 것} 이 내리 들리 소위된
다. 사람(persona)란 말도 생각기도 그리
고 동행이서 볼래 없애는 개념이다. ~~원근~~
조나란 볼래 <가면>이라는 뜻 ^{으로} ~~한~~ 무대
이시 나뭇 개념이다. 그러니 이것이 리

안과 차안, 성의 속 등 세제를 이원화
하며 역사적 지면을 갈라놓는다

이런 마당에서 한국의 허약한 정치 현
실이 지성인들에게 민중을 맞나게 했다.
오래 ~~후~~ 재이 계주속의 갈려 잇는 신헌제
이든 민중을 맞나는 통로가 될리게 되
었고 그것은 일찍 신헌자들에게 주지 못하
였다.

이 민중을 맞나므로 이원론 주개 사이
의 담을 허고 다시 합류할 수 있게 된다

다 신라 인간, 성숙, 그리고 인격이란
 이들을 멀리 못나도 처럼 그려진 인간이란
 과거의 함정이 가늠 못하다

이 때로는 이러한 사건의 취합을 보고
 한 것이 다